

“전북의 미래 위해 함께 힘써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이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날 3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문승우 의장 이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승우 의장은 “취임 당시 전북 못을 챙기는 날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후반기 의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다했다”고 운을 뗀 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적극 알리며 힘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 대선이라는 정국 혼란 속에서도 지역 현안과 국가 예산을 지켜내고 의원 정수 확대를 의회 자치역량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게 됐다”고 회고하며 “이 모든 성취는 한 마음으로 함께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변화의 시기를 맞은 전북의 미래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금 전북은 지역 소멸 위기라는 현실적 과제와 새민금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투자 유치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날 30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문승우 의장 이임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재 어디서든 전북의 발전과도

민의 행복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사무처는 이날 문승우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눈 질환 조기 발견·적기 치료 남원시보건소, 무료 안과 검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날 30일, 운봉읍 지리산커뮤니티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30여 명을 대상으로 눈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안과 전문의를 비롯한 재단 소속 직원과 남원시보건소,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여했다. 검진은 △문진 △시력·굴절·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저검사 △정밀 검사 등이 실시됐다.

또한 전문의와 1대1 상담을 통해 눈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돋보기 안약, 인공눈물, 항생제, 눈 관리 관련 소책자 등을 제공했으며,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계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범죄 없는 지역사회 위한 원로들의 다짐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사)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회장 김재영)가 국가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80세 이상 원로회원들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날 30일 전주시 노송동 백송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원로회원 17명이 참석해 오찬을 함께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재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원로회원들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원로 회원들은 “교정행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퇴직 이후에도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인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이 계속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영 회장은 “선배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원로회원들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지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정인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입을 모았다.

김재영 회장은 “선배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원로회원들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지난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정인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반찬나눔 봉사활동

김제여성새일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지난날 30일 반찬수제도시락 양성과정 수료생들과 함께 배움의 취업으로 나눔은 행복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반찬수제도시락 양성과정 수료생 16명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제시원로회관에서 직접 반찬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치매안심마을 안전환경 조성 지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날 29일부터 이틀간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신풍동 치매안심마을을 치매환자가 정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환자의 낙상사고 예방과 일상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했으며 치매환자 가정을 사전 방문해 주거환경과 안전 취약 여부를 확인 후, 지원이 필요한 8가구를 선정해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창자봉센터, ‘함께 전북 착한 한끼나눔’ 행사 성료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옥)는 지난날 29일 고수북합동화해육성센터에서 ‘2026 함께 전북, 착한 한끼나눔’을 운영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고, 고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했다. 고수면 어르신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봉사와 문화공연 등을 함께 진행해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는 북경면(대표 홍성동)과 고수면 새마을부녀회 등 푸드봉사단을 비롯해 인체상용반응음료협회, 재향군인회, 고창자연놀이학교, 대한어머니회 등 전문봉사단과 고창고교장구예숙단, 고창보양민요단 등 총 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지원과 다양한 체험·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동급식차량을 활용한 짜장면 식사 지원을 비롯해 귀반



사·이월·이침 봉사, 안마 봉사, 원예치유 체험, 네일케어 및 네일아트 등 전문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또한 고고장구 공연과 민요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 신풍동, 어려운 이웃 위한 여름김치 나눔

군산시 신풍동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는 지난날 30일,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여름김치나눔 김치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 80세대의 여름철 식생활 지원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열무김치와 맛김치를 전달하며 대상자들의 건강과 안부를 함께 살폈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마음까지 배달되는 치킨 지원 추진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부터 마음까지 배달되는 치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1일 1가구 소용량 포장과 연계해 저소득 취약계층 4가구를 직접 찾아 치킨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의 건강과 생활을 살피는 한편, 대상자의 불편사항과 건강 상태를 살피고 소용량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입암면, 어르신 400명에 ‘호 삼계탕’ 대접

정읍시 입암면이 지난날 29일 입춘대길복지관 광장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400인분의 삼계탕을 대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사)잡종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대표 유영준)가 밥차와 닭 400마리를 후원하면서 이뤄졌다. 입암면은 무더위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면서 깊은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대강면,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대강면은 1일 1가구 가정방문'을 통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찾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대강면은 대상자들의 안전한 이동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해당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례관리비를 활용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진 전북,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지난날 29일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운영일 본부장과 임직원들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본부 임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며 2년 연속 1,000만원 기부금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로 군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2,000만원에 이르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부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운영일 본부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부안의 발전을 응원하는 뜻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년 연속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북본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정

고창소방서(서장 이경승)는 대응예방과 대응구조팀장으로 근무하는 이창 소방경이 2026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모범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직사회 발전과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포상이다.

이창 소방경은 대응예방과 대응구조팀장으로 근무하며 의용소방대 운영과 육성은 물론 각종 구조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재난·재해 대응훈련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힘쓰는 한편, 의용소방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이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5세 이음교육 실천 리듬 콘서트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날 30일 고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누리고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 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함께하는 ‘소리리듬나눔 우리 리듬으로 크는 우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세 이음교육 실천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하는 연합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고창꿈꾸는유치원과 고창남초, 중앙유치원, 가평초병설유치원과 가평초 학생들이, 2부에는 고수초, 공음초, 대신초 등 14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해당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함께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